

2025학년도 1학기 문헌연구보고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문제점 분석과 개선책 제시

이름	염가현
전공	법학부
학번	20250500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개념과 필요성
 - 1)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개념
 - 2)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필요성
2.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의 문제점
 - 1) 일회용컵의 낮은 반환율
 - 2) 카페 업주와 기업에 대한 과도한 부담
 - (1) 카페 가맹업주들의 과도한 부담
 - (2) 회의적인 프랜차이즈 본사
 - 3) 정부의 모호한 태도로 인한 역효과 발생
3. 일회용컵 보증금제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 정부와 기업의 협업을 통한 ‘프랜차이즈 전용 무인수거 반납기’ 설치 방안
 - 1) 방안 전략
 - (1) 프랜차이즈 전용 무인수거 반납기 설치
 - ① 전략의 필요성
 - ② 정부의 ‘수거 과정’에서의 적극적 협업
 - ③ ‘공정과 판매 과정’에서의 책임있는 기업의 움직임
 - ④ 전략 시행을 위한 예산안 규모
 - (2) 프랜차이즈 어플과의 연동서비스 제공
 - (3) 현금이 아닌 입출금계좌를 통한 보증금 반환 신청
 - (4) 지역별 무인수거반납기 할당 설치 계획
 - 2) 기대효과
 - (1) 같은 재질의 컵끼리 분류하여 재활용률을 올리는 효과
 - ① 반환과 수거과정에서의 편리함 제공
 - ② ‘메가커피’에 가상으로 적용해보았을 때 기대되는 효과
 - (2) 소비자들의 일회용 컵 반환율을 올리는 효과

III. 결론

* 참고문헌

I. 서론

기사에 따르면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처음 도입을 이야기하던 2022년 정부가 전국에서 시행하겠다고 행정예고까지 한 제도이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이유로 6개월 시행을 유예했었고 결국 세종과 제주에서만 축소되어 시행된 것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시작부터 허점이 많은 제도였다.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 시행 대상 범주 설정과 이로 인해 매출과는 관계없이 특정 카페들만 보증금제를 시행해야 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고려되지 못했고 관련 업주들의 매출 감소와 제도 시행을 위해 추가되는 작업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었다(강효섭, 권민지, 2022. 11. 14.). 투데이 신문에 따르면 이후 감사원이 공익감사 후 환경부에 전국 확대 방안 마련을 요구하기도 하였지만 결국 이 제도는 2024년 지자체와 소비자 자율 시행으로 전환되면서 사실상 전국 확대 기조를 폐지한 상황이 되었다(박효령, 2024. 10.25.). 또한 이러한 정부의 모호한 태도로 인해 제도의 참여율과 일회용컵 반환율은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다(박효령, 2024. 10. 25.). 결국 초반부터 제도의 허점들과 계속된 시행 번복으로 인해 관련 업주들과 시민들의 혼란과 부담만을 안겨준 채 무책임하게 제도의 실정이 모호해진 것이다. 또한 월간환경의 칼럼에 따르면 여태껏 전국 확대 시행이라는 국가의 정책을 신뢰하고 친환경 제품 개발과 생산에 투자한 기업들의 상황도 어려워져 혼란만 가중된 상황이라고 한다(김인성, 2024. 12.).

이 보고서의 본론에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한 뒤 현재 시행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문제점에 대해 제도자체의 허점, 기업과 가맹업주 등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프랜차이즈 전용 무인수거 반납기 설치'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현재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것이다. 이 전략을 통해 일회용컵의 재활용률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제도의 확대 시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II. 본론

1.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개념과 필요성

1)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개념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 컵에 일정 금액인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부과해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이다(조준호, 2024. 10. 24.). 따라서 소비자는 보증금이 포함된 값으로 음료를 구입하고, 반환 시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

2)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필요성

이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003~2008년까지 시행되다 낮은 컵의 회수율 등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며 회수되지 않은 일회용 컵의 보증금 활용 방법에 대한 비판이 이어진 후 제도가 폐지되었었다. 그러나 제도 폐지 이후 카페 프랜차이즈 등의 급성장으로 커피를 비롯한 카페 음료의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일회용 컵 사용량이 급증하였고, 이에 따른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가 문제점으로 대두되면서 이러한 문제점의 대책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또한 김예운 기자의 기사에 따르면, 독일은 '판트'라는 보증금을 부과해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중인데, 판트의 가격이 소비자의 반환 동기를 불러일으키기에 비중 있고, 반환이 쉽다는 장점으로 약 95%에 이르는 페트병 재활용률을 달성했다고 보도했다(동아일보, 2023. 09. 12.). 이렇듯 독일의 사례로도 보아 제도의 시스템이 잘 정착된다면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의 문제점을 감소시킬 수 있다.

2.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의 문제점

1) 일회용컵의 낮은 반환율

'일회용컵 보증금제'에서 보증금은 이용자들에게 '회수'의 동기를 맡는다. 하지만 지금껏 시행되어 온 보

보증금의 보증금은 50~100원, 약 300원까지 책정되어 시행되었는데, 편리함에 큰 가치를 두는 현대인들의 특성을 고려하면 지난 제도들의 보증금이 '회수'의 동기부여가 될 정도의 가격일지에 대해 의문점이 남는다.(조지연, 조유진, 2022:75) 300원까지도 현대인들은 단순히 300원을 더 내고 음료를 먹는다고 생각하고 반환하지 않고 무단투기를 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

컵 반환 시 복잡한 절차의 문제도 있다. 현재는 무인 수거함이 일상 곳곳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반환이 편리하지 않다.(조지연, 조유진, 2022:75) 그러나 무인 수거함이 아니라면 컵을 구매했던 그 카페에 가서 반납을 해야하기 때문에 번거로운 문제점들이 많다.

현재의 실정으로는 제도의 접근성이 낮다고 보여진다. 무인 수거함의 수량 부족, '자원순환보증금 앱'과 같이 반납할 수 있는 어플의 접근성이 낮은 점, 특정 지역에서만의 시행 등으로 보증금제에 참여하지 않거나 일회용 컵을 반환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2) 카페 업주와 기업에 대한 과도한 부담

(1) 카페 가맹업주들의 과도한 부담

임유정 기자의 기사에 따르면, 보증금제를 도입함으로써 카페 가맹점주들에게 매장 내 컵 회수, 무인 회수기 설치, 보증금제 전용 라벨부착기 비치, 비표준용기 회수처리 비용을 환급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 산하 자원순환 보증금 관리센터에 선입금해야 하는 의무 등 카페 운영 이외의 추가적인 부담이 지어지게 된다고 말한다(데일리안, 2025. 02. 25.).

제도 운영으로 오히려 방문 고객이 줄어 매출 감소를 우려하는 등 제도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업주들이 생기고, 이것이 낮은 참여율을 발생시키고 있다.

(2) 회의적인 프랜차이즈 본사

제도의 도입 후 직접적으로 부담을 지는 쪽은 카페 가맹점주들이다. 반납하는 컵이 보증금 대상인지 확인하는 반납라벨을 점주가 직접 사서 붙여야 하며 회수한 컵의 처리 비용, 카페 운영 이외의 추가적인 인건비 등을 고려할 때 가맹점주들은 손해를 보면서 이 제도를 참여해야하는 상황이다(김예원, 2023. 01. 05.).

하지만 프랜차이즈 본사에선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증금제 시행을 위해 컵의 재질을 통일시켜야 하는데, 컵을 중국 및 동남아 지역에서 싸게 수입하는 구조인 회사들이 많고, 국내생산이더라도 전보다 컵 판매의 마진감소를 예상하기 때문이다. 혹은 본사가 컵의 라벨을 관리하여 가맹점에 판매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럴 경우 생산 공정 과정을 더 늘려야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비용의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3) 정부의 모호한 태도로 인한 역효과 발생

전국 확대 시행을 계획하던 환경부는 결국 2024년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시행을 철회했다. 조준호 기자의 기사에 따르면, 24년 국정감사에서 환경부 장관은 보증금제를 처음 도입한 2020년 온실가스 66% 이상 감소와 연간 445억 원의 편익 발생의 효과를 전망한 것과 달리 국민적 수용성이 낮다고 보도했으며(소비자타임즈, 2024. 10. 24.), 또한 박효령 기자의 기사에 따르면, 환경부는 일회용 컵 재활용률의 비율이 낮고 일괄적으로 전국 확대 시 농어촌 등 이동 거리가 먼 지역의 접근성, 매장이 부담해야 하는 업무 문제 등을 이유로 전국 확대 시행은 한계가 있으며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해야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고 보도했다(투데이신문, 2024. 10. 25.). 따라서 기존에 시행되던 제도의 강제성이 사라지게 되었다. 자율시행 전환으로 전국 확대 시행도 어려울 것이고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제도 미참여 매장에 과태료를 부과한 제주와 다르게 단순 자율시행이었던 세종은 오히려 낮은 참여율과 재활용률을 기록

하였는데, 이는 제도의 강제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단순 지자체 자율 시행으로 전환한다면 세종과 같은 결과는 이미 예견된 것이며 정부의 자율시행 입장이 “책임 회피”로 여겨지며 오히려 참여하는 소비자와 매장이 감소하는 이탈현상 등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또 지자체 자율시행으로 전환 시 컵 회수, 재활용을 위해 매장당 부담해야하는 컵 처리비용 43~70원을 지역별 카페의 수만큼 곱하여 부담하여야 하며 지자체별 환경 제도 도입을 위한 추가 재정 문제도 발생한다. 또한 업주들 사이에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오히려 참여율이 낮아질 수 있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는 한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제도 시행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3. 일회용컵 보증금제 안착을 위한 개선방안 - 정부와 기업의 협업을 통한 ‘프랜차이즈 전용 무인수거 반납기’ 설치 방안

1) 방안 전략

(1) 프랜차이즈 전용 무인수거 반납기 설치

① 전략의 필요성

현재 시행 중인 일회용컵 무인수거반납기는 프랜차이즈 회사별로 시행 중이지 않고 보증금제에 참여 중인 카페의 컵들을 일괄 수거하여 분류 처리하고 있는 방식이다. 하지만 테이크 아웃에 쓰이는 컵의 재질은 PET, PP 등 플라스틱, 발포컵과 단열컵 등의 특수 종이컵, 리유저블 컵이나 페트캔(캔시머) 등 매우 다양하며 때문에 프랜차이즈 회사들의 컵의 재질은 각기 다르다. 실제로 PET 재질을 사용하는 ‘메가커피’, ‘컴포스커피’부터 리유저블 컵을 사용하는 ‘디저트 39’, 페트캔을 사용하는 ‘캔시머’ 등 회사 별 컵의 재질이 매우 다양하다. 또한 카페 별 로고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인쇄되는 로고의 모양과 색깔도 다양하다. 때문에 같은 재질의 컵끼리 완벽하게 분리할 수 없고 분류하는 데에도 번거로움이 따른다. 이러한 문제점과 고품질 재활용을 위해서는 같은 재질의 컵끼리 모아야 하므로 각 브랜드에서 고객에게 제공한 컵을 자체적으로 수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문가의 입장과 국내 전국 각지에는 매우 다양하고 많은 수의 프랜차이즈가 존재한다는 특성을 토대로 프랜차이즈 전용 무인수거반납기를 설치해야 한다.

② 정부의 ‘수거 과정’에서의 적극적 협업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 과정을 세분화한다면, 컵의 ‘공정-판매-수거’의 형태로 나눌 수 있다. 현재 환경부는 주로 라벨부착기구, 라벨비 등 공정과정에 지원을 해왔다. 때문에 처음 제도를 도입했을 때에 비해 제도에 참여하는 것 자체의 어려움은 낮은 상황이다. 그러나 전용 컵을 아무리 많이 판매하더라도 원활한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제도는 실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무인수거반납기를 기업이 자체적으로 설치하기에는 비용의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환경부는 공정 과정에 지원하던 예산을 수거 과정의 지원으로 전환해 무인수거반납기 설치와 재활용 업체와의 계약 체결 등 컵의 수거 시스템을 체계화 시켜 수거 분야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한다.

③ ‘공정과 판매 과정’에서의 책임있는 기업의 움직임

앞서 문제점 분석에서 다뤘듯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생산 공정 과정을 더 늘려야 하는 것에 대한 비용과 복잡함을 이유로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며 가맹업주들에게 부담만 지우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수거 과정에서의 비용도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이 중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수거 과정을 정부가 지원해준다면 기업은 공정과 판매 과정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은 현재 가맹점에서 따로 라벨을 붙이는 인력낭비를 막기 위해 컵에 라벨이 붙여 나올 수 있게 공정 체계를 다시 개선하는 등 라벨 관리를 해야한다. 또 소비자들도 적극적으로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 포인트 지급이나 일정 반환 달성 시 음료 무료 제공, 제도 참여를 독려하는 다양한 이벤트 기획 등의 판매 과정에도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④ 전략 시행을 위한 예산안 규모

한국경제의 기사에 따르면, 자판기형 무인회수기의 가격은 공공장소용이 대당 약 2400만원이다(곽용희, 2023. 07. 23.). 프랜차이즈 중에서도 많은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메가커피’를 예시로 들어본다면, 현재 메가커피의 가맹점 수는 약 3600개이므로 가맹점마다 한 대씩 모두 설치한다면 864억원이 들어간다. 그러나 서울이나 경기권 지역은 가까운 위치에 가맹점이 모여있는 경우도 존재하며 이런 지역은 굳이 점포마다 한 대씩 설치하기보다 여러 점포들을 절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예산안을 줄일 수 있다. 또 메가커피보다 점포 수가 적은 프랜차이즈는 더 적은 예산으로 전략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워터저널의 기사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을 전년도 대비 3.3% 증가한 14조8천262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금을 제외한 환경부의 예산은 13조 94억원으로 편성되었다(워터저널, 2024. 10. 07.). 또한 무인회수기 설치에 미반환된 보증금을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 더 효과적인 예산 지출을 기대할 수 있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COSMO)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미반환 보증금 편성 내역은 273억 3천8백만원으로(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COSMO), 2025. 02. 11.), 환경부의 증가된 예산과 미반환 보증금을 함께 사용한다면 더 합리적인 예산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2) 프랜차이즈 어플과의 연동서비스 제공

현재 일회용컵 반납을 위해서는 ‘자원순환보증금’ 어플을 설치하여야지만 반납할 수 있는 방식이다. 실제로 뉴스핌의 기사의 따르면, 환경부가 파악한 ‘일회용 컵 보증금제 개선방향 논의자료’에서는 소비자가 앱을 설치해서 반납해야 하는 방식에 불편함을 느낀다고 보고된 바도 있다(뉴스핌, 2025. 02. 18.). 프랜차이즈 전용이라는 무인반납기의 특징을 살려서 현재 이미 사용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어플과의 연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어플의 접근성을 올릴 것을 제안한다.

(3) 현금이 아닌 입출금계좌를 통한 보증금 반환 신청

현재 무인수거반납기에서는 일회용 컵을 반납하면 백 원 단위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반환해주고 있다. 하지만 카드거래와 삼성페이, 카카오페이와 같은 모바일 거래가 주된 요즘 현금으로 반환해주는 시스템은 번거로우며 불편한 점이 많다. 이 점을 고려하여 반환 시 안심번호와 같은 ‘안심계좌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한다. 소비자가 보증금을 받을 입출금 계좌를 입력하면 소비자마다의 안심계좌를 부여해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를 방지하면서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반납기의 훨씬 편리하고 안전한 이용이 가능할 것이다.

(4) 지역별 무인수거반납기 할당 설치 계획

현재에는 반납기의 접근성이 낮아 회수율이 낮은 실정이다. 방식은 반납기에 반납을 하거나 음료를 구매한 카페에 직접 반납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구매한 카페까지 가서 직접 반납하는 방식은 매우 번거롭기에 무인반납기를 선호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따라서 지역별 프랜차이즈 입점 수를 파악하여 그 수에 비례하여 할당 설치하는 방식으로 나아간다면 반납기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무인반납기는 지역별 고객 방문량이 높은 카페 근처를 중심으로 설치한다. 반환 시 번거로운 점의 핵심은 ‘음료를 구매한 매장’에 가서 반환을 해야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미 전국, 지역 곳곳에 많은 수 입점해있는 프랜차이즈의 특성을 반영할 때, 각 카페 근처에 반납기를 설치한다면 소비자의 주된 활동 지역에 편리한 반납이 가능할 것이다.

2) 기대효과

(1) 같은 재질의 컵끼리 분류하여 재활용률을 올리는 효과

① 반환과 수거과정에서의 편리함 제공

프랜차이즈 전용 반납기이므로 전보다 같은 재질의 컵을 분류하는 것이 용이해질 것이다. 또 다른 재질의 컵을 분류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거하여 재활용 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해질 것이다.

② ‘메가커피’에 가상으로 적용해보았을 때 기대되는 효과

현재 국내에는 프랜차이즈 카페의 종류 뿐만 아니라 그 수마저 매우 많다. 그러므로 한 번에 모든 매장에 이 전략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특정 프랜차이즈에 적용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 전략을 수행해야한다. 시범사업의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적인 기업을 골라야하는데, 전국 2위의 점포 수를 기록하며 계속하여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카카오페이와 삼성페이 등의 전자결제도 많이 사용되며 시즌 한정 메뉴와 신메뉴 개발로 다양한 메뉴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장 보편적인 PET 재질을 사용하는, 한국인이라면 한 번씩은 모두 이용해보았을 ‘메가커피’가 그 대상으로 적합하다.

이미 일회용컵 무인수거기를 운영하고 있는 ‘수원시’의 사례를 토대로 무인수거기의 재활용 효과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장진 기자의 기사에 따르면, 수원시는 2022년부터 서수원주민편익시설, 수원체육문화센터에 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는 두 곳이라는 무인수거기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투명페트병 803kg을 회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경기신문, 2024. 08. 07.). 테이크아웃 플라스틱 컵 1개의 무게는 약 15g이다. 따라서 수원시는 무인회수기 2대로 2023년도 투명페트병 53000병을 감축시키는 성과를 거둔 것이고, 한달에 약 4400병 정도를 감축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메가커피 점포 하나에 적용시킨다면, 메가커피 가맹점의 월 평균 매출은 500만원이며 아메리카노 한 잔의 가격이 2000원인 것을 고려할 때 한달에 약 2500잔 정도 판다고 분석할 수 있다. 그렇기에 무인회수기를 설치하였을 때 높은 재활용률을 기대할 수 있다.

(2) 소비자들의 일회용 컵 반환율을 올리는 효과

이미 소비자들에게 접근성이 높은 프랜차이즈 애플과의 연동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일회용 컵 반환 절차에 있어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으며 연동서비스로 포인트 적립과 사용이 더 용이해지는 효과로 전보다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반환의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다. 안심계좌를 이용한 보증금 반환 시스템 또한 소비자들에게 반환의 동기부여를 제공할 것이며 이로 인해 일회용 컵 반환율을 높일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국내 커피전문점 등의 급성장으로 커피를 비롯한 카페 음료의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일회용 컵 사용량이 급증하였고,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가 문제점으로 대두되면서 다시금 필요성이 논의된 제도이다. 그러나 도입 초반부터 허점들이 많았으며 정부의 전국 확대 시행의 입장을 보이다가 결국 지자체 자율 시행으로 전환되는 모호한 입장으로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지 못하였다.

이에 현재 시행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반환 동기를 일으키기에 부족한 보증금 가격, 부족한 무인수거함과 복잡한 반환 절차 등을 이유로 일회용컵의 낮은 반환율, 비용의 문제점으로 가맹업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회의적인 프랜차이즈 본사의 움직임과 이로 인한 카페 가맹업주들에게 지어지는 과도한 부담 그리고 정부의 전국 확대 시행에서 지자체 자율시행 전환의 모호한 태도를 보이며 제도의 강제성이 사라져 오히려 전보다 참여율과 재활용률이 감소하는 역효과의 문제가 분석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전략으로 ‘프랜차이즈 전용 무인수거반납기 설치’의 전략을 내세웠다. 현재 프랜차이즈들은 로고부터 일회용 컵의 재질이 매우 다양하다. 때문에 현재 설치된 반납기는 다양한 재질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재활용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위의 전략을 통해 동일한 재질의 컵끼리 고품질 재활용을 실현시킬 수 있다. 컵의 공정-판매-수거의 과정 중 기업이 책임있는 태도로 컵의 라벨생산과 공정과정을 책임지고 정부는 무인반납기 설치와 수거 후 재활용의 절차까지 지원하며 수거과정을 책임지는 세부전략을 기획했다. 또 프랜차이즈 어플과의 연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어플의 접근성을 높이고, 포인트의 사용을 더 용이하게 하며 안심계좌서비스를 도입하여 소비자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반환 동기를 북돋아 높은 재활용률을 기대할 수 있다. 또 매장의 개수를 파악해 지역 할당제로 수거기를 설치한다면 전국 확대의 효과를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뉴스 기사, 칼럼>

곽용희(2023. 07. 23.), '일회용컵 회수기 제주3개, 세종 1개뿐...위치 몰라 컵 반납 안해', "한국경제", [일회용컵 회수기 제주 3개·세종 1개뿐... "위치 몰라 컵 반납 안해"](#)(2025. 04. 04.)

고동명(2023. 09. 18.), '제주도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자체 자율시행 반대...반환경 정책', "뉴스1", <https://www.news1.kr/local/jeju/5175180>(2025. 04. 04.)

강효섭, 권민지(2022. 11. 14.),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앞두고 곳곳 혼란', "JIBS",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1/0000015989> (2025. 04. 04.)

김경태(2024. 01.), '일회용품 없는 사회를 향하여_일회용컵 보증금제 1년, 제주도민 85% 동의', "월간환경",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1893959>(2025. 04. 07.)

김예원(2023. 01. 05.), '카페 가맹점주들, 일회용컵 보증금제 프랜차이즈 본사도 부담해야', "뉴스1", <https://www.news1.kr/industry/sb-founded/4916757>(2025. 04. 04.)

김예윤(2023. 09. 12.), '佛, 패스트푸드점 일회용품 금지... 獨, 보증금제로 폐트병 95% 회수',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912/121132527/1>(2025. 04. 04.)

김인성(2024. 12.), '환경정책 포기한 환경부_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개선인가, 개악인가', "월간환경",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1997218>(2025. 04. 04.)

김인성, 박준영(2023. 02.), '기획특집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일회용컵 보증금제', "월간환경",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1909955>(2025. 04. 07.)

박우영(2024. 10. 08.), '수백억 들인 컵 보증금제, 일회용품 사용 못 줄이고 회수도 안 돼', "창업일보", <https://www.news33.net/news/articleView.html?idxno=105533> (2025. 04. 04.)

박효령(2024. 10. 25.),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철회한 환경부 ..국민, 소상공인 혼란만 야기', "투데이신문",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511>(2025. 04. 07.)

변소인(2022. 06. 21.), '또 암초 만난 일회용컵 보증금제...라벨기계 구매에 프랜차이즈 본사 반발', "뉴스토마토",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29723&inflow=N>(2025. 04. 07.)

배민수(2024. 10. 07.), '[정책브리핑] 2025년 환경부 예산안', "워터저널", <https://www.water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619>(2025. 04. 07.)

유동선(2024. 08. 05.), '6일부터 서울 42개 카페에 일회용컵 반납하면 100원 받는다', "뉴데일리경제",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4/08/05/2024080500180.html>(2025. 04. 04.)

이솜이(2023. 01. 05.), '일회용컵 보증금제 가맹본사 역할·책임 강화돼야', "이코노믹 리뷰",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99672>(2025. 04. 04.)

임유정(2025. 02. 25.), '일회용 컵 보증금제' 자율로 전국 확대... '실효성 논란 여전, 새로운 대안 필요',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1465334>(2025. 04. 04.)

이유나(2025. 02. 18.),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실효성 부족, 전문가 다회용컵 사용이 대안', "뉴스핌",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실효성 부족...전문가 "다회용컵 사용이 대안"](#)(2025. 04. 04.)

장진(2024. 08. 07.), ‘수원시,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확대...올바른 분리배출 인식 제고’, “경기신문”, [수원시,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확대...올바른 분리배출 인식 제고](#)(2025. 04. 07.)

조준호(2024. 10. 24.), ‘환경부 “일회용 컵 보증금제 강제 없다”...지자체 자율 시행’, “소비자타임즈”, <http://www.times24.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79>(2025. 04. 04.)

<인터넷 자료>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2025. 02. 11.), ‘2024년도 4/4분기 미반환 보증금 집행내역 공개’, https://www.cosmo.or.kr/board.es?mid=a10401000000&bid=0001&list_no=59642&act=view(2025. 04. 04.)

<소논문>

조지연, 조유진, ‘일회용 컵 보증금제 재도입에 따른 선행 제도의 문제점 분석과 보완점 제안’,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3, 한국환경정책학회, 2022.02., pp. 75~76.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1044065>